논어 6편 옹야 11장 · 원문·풀이

子謂子夏曰：「女爲君子儒，無爲小人儒。」

독음 · 자위자하왈 여위군자유 무위소인유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하에게 군자다운 학자가 되고 소인 같은 학자는 되지 말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夏 여름 하 하 / 曰 가로 왈

女 계집 녀 여 / 爲 할 위 / 君 임금 군 / 儒 선비 유 유

無 없을 무 무 / 小 작을 소 소 / 人 사람 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